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1호

### Good Bye 2020, 스포츠계 주요 뉴스

“사상 초유의 무관중 장기화 사태”

“코로나19 여파...2020 도쿄 올림픽 연기”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한국 체육계 문제점 여전히” 등

### 스포츠 선진국 도약을 위한 과제

“스포츠계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가진 리더 필요”

“스포츠 선진국 도약 위해 **스포츠 거버넌스**로 머리 맞댄다”

### 폭행·인권침해 지도자...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서울시 **미투 논란**에 감독 선발 보류...선수 인권·안전 최우선”

“경남개발공사 핸드볼 감독 **성희룡** 중징계...관리감독 **도마**”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 ‘굿바이 2020’ 스포츠계 주요 뉴스



전 세계가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가운데 스포츠계 또한 엄청난 격변을 겪었다. 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이 연기됐고, 각종 스포츠 이벤트가 줄줄이 취소됐다. 2020년 한 해를 장식한 스포츠 뉴스를 정리해봤다.

(뉴스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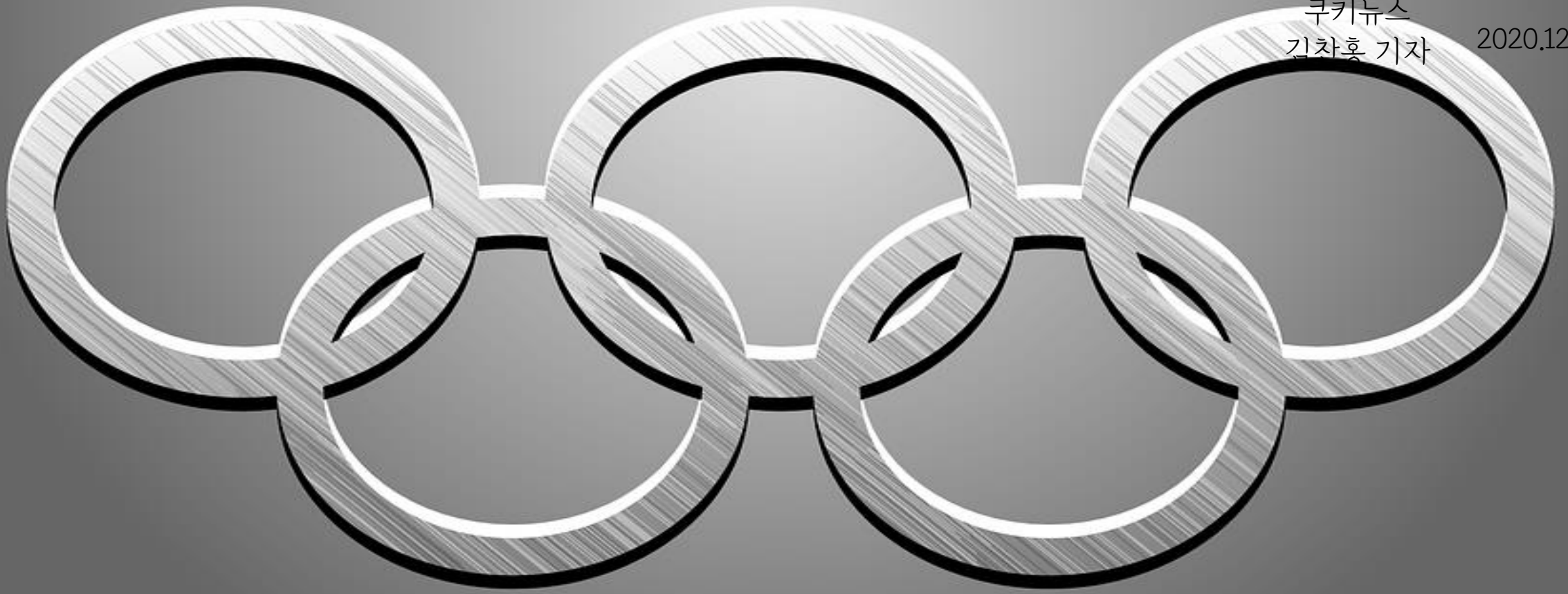
## ① 사상 초유의 무관중 장기화 사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에 스포츠계도 흔들렸다. 지난 3월 시즌이 한창이던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는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시즌을 접게 됐다.

주로 3월에 시즌을 개막하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역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개막을 미루다가 지난 5월 무관중 체제로 리그 일정을 간신히 시작했다. 여름철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소 줄면서 유관중 체재로 전환했으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결국 무관중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무관중으로 시즌이 진행되면서 구단들은 적자에 시달렸고, 많은 팬들은 경기장에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래도 철저한 방역 속에 차질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전세계의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

다음 장 계속



## ② 코로나19 여파... 2020 도쿄 올림픽까지 연기

지구촌 최대 축제인 하계올림픽이 미뤄지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3월 2020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를 공식 발표했다. IOC와 개최국인 일본은 마지막까지 정상 개최 의지를 드러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결국 대회 연기를 결정했다. 앞서 1, 2차 세계대전 등 큰 전쟁으로 올림픽이 취소된 적은 있지만, 전염병으로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 올림픽은 다음해 7월에 개최 예정이지만,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일본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5000명 안팎인 상황이다. 일본 현지 언론들도 도쿄 올림픽 정상 개최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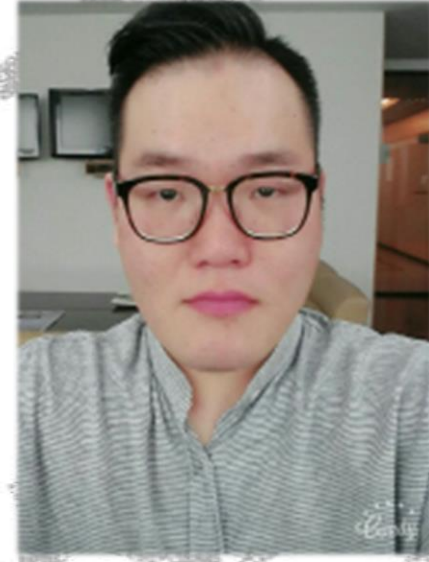
## ③ 故 최숙현 사건... 한국 체육계 문제점 여전히

여자 트라이애슬론 청소년 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지난 6월 22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수년간 감독과 동료, 팀닥터 등에게 구타, 욕설, 가혹행위를 당한 최숙현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짧은 생을 스스로 끝냈다.

최 선수가 생전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를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상규명을 지시한 끝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 [기자의눈]한국 스포츠 혁신의 사명감 가진 리더 등장해야

한국 체육이 100년을 맞은 2020년 스포츠계는 적폐와의 전쟁에 몸살을 앓았다.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 이후 지난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지만 잇따른 논란으로 한국의 스포츠 인권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외에도 학교 체육 정상화, 스포츠 인권 강화,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 7개 사항을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안들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체육계의 반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는 “2018년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사건 이후 여러 문제제기와 대책이 나왔지만 다른 현안과 여야 정쟁에 스포츠 문제는 뒷전이 됐다”며 “정부, 대한체육회, 국회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으면 스포츠 현장의 많은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계의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28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다. 내년 1월 18일 투표가 치러질 이번 선거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을 비롯 여러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5선의 이종걸 전 의원이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을 선언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기흥 현 회장을 제외한 후보들은 대한체육회가 특정 개인을 위한 단체처럼 사유화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종걸 전 의원은 “기존의 거악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 체육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구태에 안주하는 적폐”라고 강조하는 등 반(反) 이기흥 연대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누가 회장이 되든 중요한 것은 스포츠계 혁신을 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거나 개인의 사리사욕에 더 이상 활용해서는 안된다. 체육계는 낙후됐다고 비판 받는 스포츠 인권의 회복, 한국올림픽위원회(KOC)와 대한체육회 분리 등의 과제를 앞두고 있다. 한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리더의 등장을 기대한다.

[hh@asiatoday.co.kr](mailto:hh@asiatoday.co.kr)

# 스포츠 선진국 도약 위해 '스포츠 거버넌스'로 머리 맞댄다

스포츠는 단순히 체력 증진의 목적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그 효용이 무궁무진하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사회통합, 계층 간 갈등 해소, 청소년 비행 예방,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스포츠의 사회적 순기능과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포츠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포츠 거버넌스란 스포츠 발전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 주체가 협동하는 것을 뜻하며, 정책적으로 스포츠 공공성 측면을 인지하고 규범적 윤리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유럽연합은 스포츠 거버넌스를 논할 때 **'굿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IOC는 굿 거버넌스의 기본적 보편 원칙으로 조직 건전성과 공공성을 중요한 개선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스포츠 조직의 전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공동체 가치 실현에 따른 사회 전반의 신뢰 구축, 권력의 집중과 남용 방지, 조직의 비전 제시와 장기 발전 계획 등을 기본 지침으로 삼고 있다.

또한 스포츠의 굿 거버넌스는 국민들의 건강과 공공복지 증진 등 스포츠가 사회적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작년 체육계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후 체육 분야의 구조혁신을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발족하고, 스포츠계 굿 거버넌스 실현을 목표로 총 7차례의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혁신위의 활동은 마무리했으나, 권고 사항과 관련한 이행점검반을 꾸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발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정과 인권이 보장되는 스포츠 환경에서 '모든 사람의 스포츠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다음 장 계속

또한 스포츠의 굿 거버넌스는 다양한 스포츠 정책으로 스포츠에 교육적 의미를 더하고, 공공의 평등과 복지의 확대 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포츠에서 성별이나 장애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 편의성을 확장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한다.

혁신위는 3차 권고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이민자 등 다양한 인구집단이 스포츠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 권고에는 체육단체의 구조 선진화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안도 포함했다. 체육단체의 재정 지원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율성을 보장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 굿 거버넌스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독립시켜 철저한 자율성하에 대표선수단 파견과 대회 유치 등 스포츠외교와 국제스포츠 활동을 전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생활 속에 스포츠 접근성을 높이고 스포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스포츠 거버넌스에 해당한다.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운영하며 스포츠 유물을 보존, 복원하고 스포츠 유산을 지키며 스포츠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 2023년 **국립체육박물관**을 개관한다. 체육박물관은 다양한 전시는 물론 체험과 연구, 교류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K스포츠의 산실 역할을 하면서 스포츠 외교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며 스포츠의 굿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METOO

# 서울시 '미투 논란'에 감독 선발 보류 선수, 인권·안전 최우선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청 스피드 스케이팅팀 감독으로 **미투(me-too)와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최종적으로 선발한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청 스피드 스케이팅팀 감독 선발과정에서 스포츠단 운영위원회의 1순위 평가자에 대한 '미투 및 폭행' 등 부적격 의혹이 제기돼 선발을 보류했다.

향후 서울시체육회는 부적격 의혹에 대한 다양한 검증을 거쳐 선발 후보자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수들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격사유가 없는 감독이 선발되도록 서울시체육회와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입단 승인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남개발공사 핸드볼 감독 '성희롱' 중징계... 관리·감독 '도마'

지난해 코치가 선수에게 금품 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

올해 초 감독과 코치 등 새 사령탑을 선임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새로 부임한 감독이 선수를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5월.

감독과 선수, 경남개발공사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노래방 회식 자리였습니다.

이때 감독이 선수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선수들을 시켜 공사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해당 감독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지만, 자체 감사를 벌인 경남개발공사는 성희롱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외부전문가 등 6명으로 꾸려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해당 감독이 노래를 부르면서 특정 선수의 등을 쓰다듬고,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는 회식 참석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감사에서 내려진 처분은 정직 4개월, 중징계였습니다.

정직 처분이 시작된 8월 중순부터 코치가 훈련을 이끌었고, 지난달 열린 리그 개막전 등 모두 6경기를 감독 없이 치렀습니다.

징계가 끝난 감독은 이달 중순 팀에 복귀했습니다.

[한옥문/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경남도가 관리하는 출자, 출연기관에서 특히나 이런 일이 생긴 데 대해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인권이나 성추행 관련 문제들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경남개발공사의 자체감사와는 별개로 다음 달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 코치의 금품 수수에 이어 감독의 성희롱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남개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부정선거 제보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대한체육회장 선출 선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 도덕적으로 신뢰받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제보사항

-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
- 후보자 비방, 중상, 인신공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 후보자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이 필요한 사항

전화 02-2279-8999 이메일 [sports-cm@daum.net](mailto:sports-cm@daum.net)

※ 제보자의 익명성과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forsportsreform@gmail.com](mailto: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sports-cm@daum.net](mailto:sports-cm@daum.net)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